

# 손해율·회계기준 '2중악재'에 고개숙인 보험사 실적

1분기 실적 최대 40% 줄어  
저금리 지속·정책 리스크 탓  
손보·생보 모두 실적 부진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이 올 1분기 실적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잇단 보험료 인하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이 발목을 잡았다.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장성 판매 확대로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1% 감소한 30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3.9% 감소한 4319억원, 원수

<주요 손보사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삼성화재	81.4%	76.4%
DB손보	85.4%	77.5%
현대해상	80.4%	77.8%
메리츠화재	78.8%	77.3%
KB손보	84.4%	78.4%
한화손보	82.1%	78.3%

[자료=각사]

보험료는 0.4% 줄어든 4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장기보험이 0.9%, 자동차보험이 2.5%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된 을지로 사옥 처분이익으

<주요 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삼성화재	3011억원	5030억원
DB손보	1102억원	1593억원
현대해상	1060억원	1155억원
삼성생명	4158억원	5948억원

[자료=각사]



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며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손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1분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4%로 전년 동기 76.4% 대비

크게 악화했다.

DB손해보험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1102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다.

현대해상 역시 8.2% 감소한 1060억원,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각각 28.9%, 21.3% 줄어든 631억원, 294억원의 순이익을 보였다. KB손보는 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주요 손보사들이 이처럼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

손해율은 DB손보가 85.4%로 전년 동기(77.5%) 대비 크게 악화했고 이어 KB손보 84.4%(전년 동기 78.4%), 현대해상

80.4%(77.8%), 메리츠화재 78.8%(77.3%), 한화손보 82.1%(78.3%) 등을 기록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이 악화된 셈이다.

생명보험사 역시 1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4158억원을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른 생보사 역시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저축성 판매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 판매에 주력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과 정부 정책 리스크로 생·손보 보험사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달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등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실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35sea@metroseoul.co.kr]

## 신한銀, 신입행원 300명 뽑는다

오는 19일 18시까지 접수 받아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30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에 따른 영업 현장의 결원 충원과 서울시금고 유치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의 직무를 ▲기업금융·자산관리(WM) ▲정보통신기술(ICT) ▲개인금융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300여명의 신입 행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은 기존 채용 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을 위해 외부 인사관리(HR) 전문가와 내부통제 관리자를 포함한 '채용위원회'를 신설한다. 채용 시작 전 채용 프로세스 전반과 각 전형별 세부 기준 등을 점검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 실제 채용 과정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채용에서는 해당 점검 절차를 통과해야 다음 전형으로 채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전형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리뷰(Compliance Review)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서울 신한은행 본점.

이번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필기시험과 직무적합도 면접 전형도 새로 만들었다.

필기시험은 전 과정 외부에 위탁해 운영되며 NCS직업기초능력 평가(75분), 금융관련 시사상식·경제지식 평가(40분)를 2교시에 나누어 진행하고, 전국 5개 주요도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적합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번 채용의 핵심"이라며 "신한은행은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도 채용 규모를 초과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0%에 도전하는 씨티銀 출신 금융인들

(연체율·부실률)

### P2P 금융의 강자

⑦ 프로핏

은행경력 총 127년 직원들 모여  
간간한 신용평가·보호장치까지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바탕으로 P2P금융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프로핏이다. 이승룡 대표를 포함한 씨티은행 출신의 금융전문가가 운영하는 P2P 업체다.

이승룡 대표는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합치면 총 127년이다"며 "P2P금융사 운영에 필요한 유연함과 보수적인 은행경력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프로핏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핏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4월 40억원에서 올해 약 500억원(4월 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대출액에 맞춰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연체율과 부실률 또한 연간 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말 6000만원 적자가 났지만 올해 벌써 1억5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프로핏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실률 0%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는 먼저 제1금융권에서 상품개발, 여신심사, 인터넷 마케팅 등을 경험한 전



프로핏 이승룡 대표는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손진영 기자 son@]

문가들이 운영한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초창기에는 대출요청 100건 중 5건도 통과시키지 않아 간간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현재는 소문을 듣고 안정적인 대출 요청건이 증가해 20% 정도의 대출요청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로핏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 프로핏은 독자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청평점 AS(Application Score) 모형과 인구통계 생애주기 평점, DLS(Demographic Lifecycle Score)를 결합한 신용평가 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

이 대표는 "단순히 아파트 담보만 보지 않고 차주의 신용평가까지도 확인해 대

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간한 신용평가모델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프로핏은 또다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 대표는 "부실 채권에 관한 사후관리 및 처리(경매 집행 등)는 매입법인이 하고, 플랫폼은 프로핏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P2P금융에 맞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자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담보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보다 대출자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NH농협은행 김영훈 서울강서사업부장, 한성식 서울지역 노조위원장, 우진하 노조위원장, 김태균 마곡역지점장, 이대훈 은행장, 김학균 서울영업본부장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

## 마곡역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마곡역 인근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마곡역지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대훈 은행장과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김

학균 서울영업본부장, 한성식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서울지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점식에 참석한 이 행장은 "마곡지구는 IT와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의 혁신기지"라며 "마곡역지점은 수요자 중심으로 고객에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EB하나은행

##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기원 정기에금 특별금리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KEB하나은행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에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금리 정기에금은 1년제 상품으로 연 2.2%포인트(5월15일 기준, 세전)의 금리혜택이 제공되고, 총 판매한도는 5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자동 종료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KEB하나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IQ Bank) 및 콜센터에서 가입 가능



하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오는 6월 15일까지 '가자! 러시아로~ 축구는 하나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 상품을 가입한 손님중 추첨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입장

권과 K리그 경기 입장권, 대표팀 친필사인 유니폼 및 축구공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활동을 통해 그룹의 '함께 성장,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